[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식]

치 사(안)

템플스테이 10주년 기념식에 함께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1,700년 역사를 간직한 한국불교는 살아있는 전통문화의 보고입니다. 한국불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뭇 생명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정신을 전 세계인들에게 전해온 '템플스테이'가 올 해로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10년 전,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템플스테이의 성공은 전국 운영사찰의 관계자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문화체육관광부, 무엇보다 무한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이 그 힘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템플스테이는 관광 상품 이상의 의미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템플스테이는 사람과 사람을, 과거와 미래를, 자연과 문화를 잇는 소통의 창구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삶에 지치고 힘든 모든 이들이 몸과 마음을 쉬고 치유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세계인들과 늘 함께 해 왔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갈등과 혼란, 경쟁과 소외로 점철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고인古人은 '명예와 권력은 아침이슬이요, 영화와 출세는 저녁연기다'라고 하였듯 현대인들에게 물질의 충족은 더 이상 삶을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무지로 인해 참고 견뎌야만 하는 우리의 삶에 진정한 멘토가 있는 삶, 자기성찰을 통한 심신의 치유는 국가와 종교, 남녀노소를 떠나 모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새로운 삶의 가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생명 존중과 상생, 균형과 조화의 정신이 면면히 흐르는 곳,

스스로의 삶을 관조하는 수 없는 세월이 묻어있는 곳, 그 공간과 시간에서 스스로 자유롭고 평화로운 행복한 삶을 찾아가는 템플스테이는 이 시대 현대인들에게 새로운 '힐링 라이프'를 위한 대안이 되어 왔습니다.

자연과 역사, 문화와 사람이 있는 대한민국의 템플스테이는 이제 세계인이 가장 주목하는 문화콘텐츠로 성장하였습니다. 템플스테이가 전 세계인과 함께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치하합니다.

이제 템플스테이는 지난 10년의 성과를 주춧돌 삼아 다시 전통문화 체험콘텐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대인들에게 든든한 반려가 될 것을 믿습니다. 템플스테이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10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불기2556(2012)년 10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합장